

전남교육청, 유·초·중 등교 규모 3분의 1로 축소 운영

코로나19 재확산 따른 교육부 '밀집도 최소화' 방침 준수

“고교 3분의2 · 고3 · 60명 이하...소규모학교 전원 등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전남 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 규모를 당초 3분의 2에서 교육부 제시 기준인 3분의 1로 더 축소해 2학기 학사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3일 오전 휴일임에도 청사 5층 상황실에서 장석웅 교육감 주재로 코로나19 전국적 재확산에 따른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감염 차단을 위한 더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2일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

이다. 우선, 도교육청은 지난 21일(금) 전라남도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안내했던 유·초·중·고 3분의 2 등교 방침을 변경해 유·초·중은 3분의 1, 고교 및 특수학교는 3분의 2만 등교수업을 하도록 했다. 등교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는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다만,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학생들은 당초대로 전원 등교 수업을 받도록 했다. 또,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도 거리두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기존의 전원 등교수업 방침을 유지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방침을 신속하게 일선 학교에 전파해 늦어도 오는 26일(수)부터는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속에서 이뤄지는 2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과 교직원 자기진단 시스템을 활용한 '등교 전후 특별 모니터링 기간 운영' 등 긴급 방역대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의심 증상자의 학교 유입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에게 △ 마스크 착용 △ 손씻기 △ 사람 거리유지 등 3행(行), △ 유증상 시 외출금지 △ 밀집·밀폐·밀접 시설 방문 금지 △ 신체접촉 금지 등 3금(禁)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숙박형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활동도 잠정 중단키로 하는 등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활동 운영 지침도 마련해 일선학교에 안내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의 경우 거리두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농산어촌 학교가 많아 이번 등교 제한 기준 강화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학생과 교육가족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청암대학교, 순천시·순천대와 웹툰 육성 협약 체결

지역 만화문화산업 협력체계 구축 위한 업무 협약



청암대학교(총장 서형원)는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순천시 및 순천대학교와 지역 만화문화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만화문화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청암대학교는 지난 19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허석 순천시장과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 서형원 순천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만화문화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암대학교의 2021년 웹

툰콘텐츠와 신설을 계기로 만화도시로서 순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만화문화산업의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호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사항은 △지역 만화산업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확대 △지역 만화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미래형 융복합 콘텐츠 산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생태계 구축 △순천시 웹툰산업 글로벌 브랜딩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 개최 △만화·웹툰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허석 순천시장은 “우리 순천은 글로벌웹툰센터를 포함해서 콘텐츠코리아랩, 영상미디어센터 등 웹툰산업 관련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순천대와 청암대에는 관련학과들이 있어서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오늘 순

천시와 순천대학교, 청암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순천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꿈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은 “순천은 웹툰의 도시가 될 준비가 되어있다. 두 대학이 여러 인재를 양성하고 그 학생들이 졸업 후 순천에 정착해 웹툰 산업을 일으키면 순천시가 정원의 도시, 생태도시, 교육의 도시와 더불어 웹툰의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암대학교 서형원 총장은 “내년에 신설되는 웹툰콘텐츠과가 순천시와 순천대가 마련해주신 훌륭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출발하게 되어 든든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순천시의 웹툰 문화 산업 생태계를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암대학교는 2021년도부터 ‘웹툰콘텐츠과’를 신설하고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완도교육청, ‘혁신완도교육 실현 청렴캠페인’

청렴문화 확산 및 실천의지에 대한 홍보활동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식)은 지난 21일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일원에서 ‘청렴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혁신완도교육 실현’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청렴캠페인은 완도교육지원청 반부패 청렴정책 향상 T/F팀 및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싫어싫어요! 부당행위 청렴해요! 완도교육’의 구호로 청렴실천의지를 다지고, 여름휴가를 맞아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완도교육지원청 청렴문화 확산 및 실천의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해 기획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청렴 홍보활동과 더불어 명사십리 해수욕장 주변 쓰레기 줍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봉사활동을 실시해 청정한 바다처럼 행동과 마음이 청렴해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명식 교육장은 “올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및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렴을 실천하는 작은 몸짓들이 모여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보성교육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 캠페인’

학생자원봉사자들 중심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은 하계 휴가 및 방학 기간에 맞춰 8월 3일~15일, 보성울포해수욕장 등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 생활지도’를 실시했다.

보성 관내 각 지역에 코로나19 예방과 물놀이 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울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점검 및 순찰 등을 통해 장마기간 안전사고와 휴가기간 방문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특히 학생연합자치회와 함께하는 안전 캠페인은 우리 고장 안전 지키기를 희망한

학생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해수욕장 주변 환경 점검, 쓰레기 수거 등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백남근 교육장은 “매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건강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주, 유·초·중·고 원격수업 전환

내달 11일까지 1/3 · 2/3 등교수업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체 특·유·초·중·고등학교에 대해 8월 24~28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이 같은 결정은 교육부 및 보건당국

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8월 24~28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9월 11일까지 1/3 · 2/3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광주 전체 특·유·초·중·고등학교는 8월 24~28일 원격수업을 실시

한다. 다만 모든 고3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초·중학교의 경우 1/3 내외가 등교한다. 특히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유·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2/3 내외가 등교하며, 고3은 매일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조인호 기자

